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5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급등...트럼프 관세 유예 효과
- WSJ: 4월 미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6.3% 하락...항공기 수요 급감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증시 상승...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및 미·유럽 관세 갈등 완화 영향
- CNBC: JP모건, 자산 많은 고객층 유치 전략 강화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유럽, 미국과 관세 협상 가속화에 합의

[인플레 감축법 전망]

- TheEconomis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영향 크지 않을 듯

[주택]

- Bloomberg: 주택 수요 감소로 3월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글로벌 경제]

- Bloomberg: 미 관세 불구, 중국 산업 기업 수익 증가
- WSJ: 유로존 경제 신뢰도 상승...관세 갈등 완화 영향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트럼프 관세로 가격 인상 예정인 기업들
- WSJ: 사우스웨스트 항공, 첫 위탁 수하물 수수료를 35달러로 책정
- CNNBusiness: 트럼프, Nippon Steel과 US Steel, '파트너십' 체결
- WSJ: 경쟁 심화로 테슬라 유럽 판매 49% 급감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Confidence Jumps Most in Four Years on Trade Truce

5월 미 소비자 신뢰지수 급등...트럼프 관세 유예 효과

-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유예되면서 미국 경제 전망과 노동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돼, 5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거의 5년 만의 최저치에서 크게 반등했다.
- 화요일 발표된 컨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상승한 98을 기록하며, 최근 4년간 월간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 향후 6개월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고, 현재 여건을 평가하는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 이번 신뢰지수 상승은 연령, 소득, 정치 성향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Bloomberg 기사

WSJ: U.S. Durable Goods Orders Tumble on Lower Aircraft Demand 4월 미 내구재 주문, 전월 대비 6.3% 하락...항공기 수요 급감

- 4월 미국의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6.3% 감소했다. 이는 3월의 7.6% 증가와 대조된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 상무부가 화요일 발표했다.
- 특히 운송 장비 부문이 17.1% 크게 줄었는데, 이 중에서도 비국방용 항공기 및 관련 부품 주문이 51.5%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 운송 장비를 제외한 내구재 주문은 4월에 오히려 0.2% 증가했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Stocks Climb on Trade Talks as Bond Yields Slide 미 증시 상승...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및 미·유럽 관세 갈등 완화 영향

- 화요일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의 상승과 미국과 유럽 간 관세 갈등의 완화 소식에 힘입어 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글로벌 채권시장의 랠리 역시 투자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일본의 불안한 채권시장이 진정될 것이라는 신호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 지난주 하락세를 보였던 증시는 이번 주 들어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 S&P 500지수는 1.56%, 나스닥지수는 1.93% 상승하며 거래 중이다.

Bloomberg 기사

CNBC: JPMorgan Chase is heading upmarket to woo America's millionaires JP모건, 자산 많은 고객층 유치 전략 강화

- JP모건은 2023년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First Republic Bank)을 인수한 이후, 뉴욕·캘리포니아·플로리다·매사추세츠 등 미국의 부촌 지역에서 인수한 지점을 기반으로 14개의 신규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 이 같은 움직임은 자산 규모가 큰 부유층 고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 Chase Consumer Banking에 따르면, 미국 내 약 1,900만 가구의 부유층이 JP모건과 거래하고 있지만, 이들이 JP모건 전체 투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다.
- JP모건은 예금과 투자 자산을 합쳐 최소 7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고객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0만~300만 달러 수준의 고액 자산가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CNBC 기사

[미 관세 여파]

Bloomberg: EU Plans to 'Fast Track' Trade Talks With US Amid Tariff Fight 유럽, 미국과 관세 협상 가속화에 합의

- 트럼프는 유럽연합(EU)과의 관세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해 최근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은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간의 통화를 바탕으로, 양측 간 무역 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 트럼프는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50% 관세 부과를 오는 7월 9일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Bloomberg 기사

[인플레 감축법 전망]

The Economist: What happens if the Inflation Reduction Act goes away?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영향 크지 않을 듯

-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 법안에는 대표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첫째, 기업의 '세액 공제권 양도' 조항을 폐지한다. 이 조항은 다양한 세금 부담을 지닌 기업들이 청정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했으나,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유인이 사라지게 된다.
- 둘째, 중국산 부품이나 광물이 사용된 경우 세액 공제가 거부된다. 기존 IRA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셀 수입만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더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기준을 적용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 셋째, 세액 공제 자격 부여 시점을 인프라 건설 착공일에서 실질적인 운영 개시 이후로 변경한다. 운영 허가 발급의 불확실성과 실제 전력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신규 프로젝트가 세액 공제를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 에너지 분석 기관인 로듐 그룹(Rhodium Group)은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2035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률이 기존 예상치인 40%에서 30%로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 약 342GW 규모의 재생 에너지 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약 100기에 해당하는 전력 생산량이다.
-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지 않은 재생에너지조차도 이미 화석 연료 기반 발전보다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다.
- 따라서 이번 법안 개정이 미국의 탈탄소화 속도를 다소 늦출 수는 있지만,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흐름 자체가 깨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The Economist 기사

[주택]

Bloomberg: The Rise in US Home Prices Slowed in March as Buyers

Pulled Back

주택 수요 감소로 3월 주택 가격 상승세 둔화

- 3월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매물은 늘어났지만, 구매 수요는 이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S&P CoreLogic Case-Shiller)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이는 2월의 4.0% 상승률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 팬데믹 이후 지속된 가격 상승과 약 7%에 이르는 고금리 여건은 주택 구매 의욕을 약화시키고 있다. 매물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는 상대적으로 약해, 판매자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다만, 뉴욕과 시카고처럼 여전히 매물 공급이 부족한 도시들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뉴욕은 8%, 시카고는 6.5%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s Industrial Profit Growth Picks Up Despite US Tariffs

미 관세 불구, 중국 산업 기업 수익 증가

- 4월 중국 산업 기업들의 수익이 전년 동월 대비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월의 2.6% 증가에 비해 개선된 수치로,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후 제품 교체 장려 정책과 제품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 수익 증가세는 기업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한편, 기업 재무 상태의 개선을 통해 정부가 연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을 완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 전문가들은 올해 1~4월 동안 산업 기업들의 수익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관세 등 대외적 경제 도전에 대해 중국 산업계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Bloomberg 기사

WSJ: Eurozone's Economic Outlook Picks Up After Tariff Turmoil Abates

유로존 경제 신뢰도 상승...관세 갈등 완화 영향

- 유로존의 경제 신뢰도가 5월 들어 소폭 상승했다. 소비자와 기업들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혼란을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로존의 경제 신뢰지수는 4월의 93.8에서 5월에는 94.8로 상승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94.0을 웃도는 수준이다.
- 세부적으로 보면, 서비스 부문에서는 신뢰도가 다소 약세를 보였지만, 소비자 및 산업 부문은 신뢰도가 상승했으며, 소매업과 건설 부문도 개선세를 나타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These companies will raise prices because of Trump's tariffs

트럼프 관세로 가격 인상 예정인 기업들

-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Walmart, Best Buy, Ford 등 주요 소매 및 제조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 Walmart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인해 5월 말부터 가격 인상이 시작되며, 6월에는 더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Mattel, Shein, Temu 등은 관세로 인해 장난감, 의류, 전자제품 등의 가격을 조정했으며, Shein과 Temu는 특히 4월 25일부터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 Ford와 Subaru는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된 25% 관세로 인해 각각 올해 하반기에 최대 1.5%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 Procter & Gamble과 Adidas도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일부 제품 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WSJ: Southwest Airlines Sets Fee for First Checked Bag at \$35

사우스웨스트 항공, 첫 위탁 수하물 수수료를 35달러로 책정

-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5월 28일부터 첫 번째 위탁 수하물에 35달러, 두 번째 수하물에 45달러의 요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엘리트 등급 회원이나 사우스웨스트 신용카드 소지자는 여전히 무료 수하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새로운 기본 이코노미 티켓은 변경이 불가능하며, 좌석은 체크인 시 비행기 뒤쪽으로 배정된다.
- 이 티켓을 취소할 경우 6개월 내 사용 가능한 항공 크레딧으로 환불된다.
- 사우스웨스트는 수익 증대를 위해 무료 위탁 수하물 서비스와 개방형 좌석 시스템 등 기존의 특징을 포기하고 경쟁사 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WSJ 기사

CNNBusiness: President Trump says Nippon Steel and US Steel to enter into 'partnership'

트럼프, Nippon Steel과 US Steel, '파트너십' 체결

- 트럼프는 미국의 US Steel과 일본의 Nippon Steel 간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Pittsburgh에 본사를 유지하고 140억 달러의 투자를 통해 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파트너십은 바이든이 차단했던 143억 달러 규모의 인수 대신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Nippon Steel은 4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제철소 건설을 포함한 투자를 약속했다.
- US Steel은 이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기업으로 남아 더 큰 성장을 이루며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 그러나 전미철강노조는 이 거래가 미국 철강 노동자와 국가 안보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Josh Shapiro와 공화당 상원의원 Dave McCormick은 이 파트너십이 펜실베이니아의 일자리와 투자를 보장한다며 지지했다.

CNBusiness 기사

CNBC: Tesla's Europe sales plunge 49% on brand damage, rising competition

경쟁 심화로 테슬라 유럽 판매 49% 급감

- 테슬라의 유럽 자동차 판매량이 4월에 전년 대비 49% 급감하며 7,261대를 기록했다고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ACEA)가 밝혔다.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와의 정치적 연관성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3월 유럽 내 테슬라 대리점 앞 시위가 판매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 4월 전체 배터리 전기차 판매가 34.1% 증가했지만, 테슬라는 올 1~4월 판매량이 약 40% 감소했다.
- 테슬라는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출시하지 않고 순수 전기차만 판매하며, 노후된 차량 라인업과 중국 BYD 등 경쟁사의 부상으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머스크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 운영으로 바쁜 와중에도 테슬라를 향후 5년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CNBC 기사

[보고서]

"초저금리 시대는 끝났다"...BIS, 공공부채 경고음

미국·일본을 비롯한 주요국 국채 시장이 최근 요동친 가운데,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이 각국의 공공부채 급증에 대해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카르스텐스 사무총장은 27일 일본에서 열린 일본은행(BOJ) 주최 콘퍼런스에서 금리 상승으로 일부 국가의 재정 상황이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면서 각국이 공공부채의 '가차 없는'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